

문예지원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27일부터 릴레이 토론회

새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전환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예술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9월 출범하는 제2기 문화예술위의 운영방향 개선 및 각종 지원제도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27일(오후 3시 문화부 제1회의실) '예술위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문학(30일 오후 2~6시 서울 아르코미술관 강당·이하 시간 및 장소는 동일), 시각예술·다원예술(7월1일), 연극·무용(7월2일), 음악·전통예술(7월3일), 국제문화예술 교류(7월4일), 일상에서의 예술 및 문화복지(7월7일) 등 각 분야별로 현황과 지원정책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7월11일(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강당) '제1기 예술위 성과와 함께 평가를 위한 공청회'로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예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성과 제고, 직접지원 위주가 아닌 사회적 프로젝트와 간접지원 방식의 대폭 확대, 지원사업 관리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등 문화부가 제시한 4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방법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장의 고민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도종환 시인(문학), 양지연 덕성여대 교수(시각예술), 이진아 숙명여대 교수(다원예술), 안치운 호서대 교수(연극), 박성혜 평론가(무용), 허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음악), 원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통예술) 등 현장 예술인과 예술행정가, 연구자, 언론인이 참여하며 예술 전공 대학생 등도 시민논객 형식으로 자유토론회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올해 문화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규모는 833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전 지원, 심사의 편파성 등으로 예술현장에서 많은 시비를 낳았던 정기공모사업에는 184억5300만원이 투입됐다. 장르별로는 연극(19%)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통예술·시각예술(17%), 문학(16%), 음악·무용(11%), 다원예술(6%) 순이었다. 예술위는 이밖에 추진단에 위탁해 협업 형태로 지원하는 비공모사업, 자체사업, 국회승인단체 지정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한윤정기자>

- Copyright © 1996 - 2008 . 이 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은 (주)경향닷컴에 있습니다 -